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여러 종류의 영적전쟁 성경: 마가복음 1장 21-27절

Tag: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 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소란스러운 영, 장담같은 영, 자신을 드러내는 영, 잘난척 하는 영,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훼방하는 영.)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막1:21-27)

예수님은 영적전쟁의 대표적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영적전쟁의 첫 번째 관문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매우 많다.

귀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성경에 총 103회가 검색된다.

구약에 2개, 신약에 101회(심각한 신약 편중현상)

그 중에서 4복음서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89회

그 중에서 양이 제일 적은 마가복음에 32회

누가복음 30회, 마태 21회, 요한복음 6회, 복음서 이외의 신약 12회

복음서 초기에 귀신언급이 많고, 복음서 후기와 서신서에 가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

영적 전쟁의 기본 도식은 성령을 받아 귀신을 내어 쫓는다.

진리로 거짓을 내어 쫓는다.

### 개인적 영적 전쟁

\*거듭남을 통한 영적전쟁 (영적전쟁의 출발은 물세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령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것-바울, 고넬료. 반대인 경우도 있음. 에베소 교인들)

-죄인으로서의 자신과의 전쟁

-본인 스스로의 결단으로 해야 하는 영적 전쟁 (물론 주변의 크리스찬이 도움이 중요하다. 코칭.) 개인적 회개와 정확한 신앙고백이 필수.

-어렵거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님.

-다만 영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공활히 여기심<=전도, 중보기도, 친절한 신뢰감, 단순한 관계 등이 필요함.

-겸손함, 순전함, 가난함 등이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명제들이 효과적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갑니다. 우리 천국에 같이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가깝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예수님을 믿어야 저주가 끊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겨진다.

(아직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 교역자와 상담하면 쉽게 해결된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의 전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수많은 거짓말의 감옥에 갇혀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목사들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거짓들을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

-거짓정보는 귀신이 거처하는 집이다.

-진리가 거짓말을 대체하고, 그럴 때 귀신은 쫓겨난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념전쟁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건생활을 통한 영적전쟁

-견고한 진, 쓴 뿌리와 전쟁

-잘못된 습관, 잘못된 방향으로 켜진 스위치

-견고한 진, 쓴 뿌리라는 표현은 과거의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자신의 취향, 신체의 리듬, 생활 사이클이 일정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습관일 경우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것이지만, 반대로 해로운 습관은 거짓된 가르침과 정보를 믿게 될 때 무리하게 자신의 몸이 그런 악한 습관이라는 감옥에 길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DNA는 동일한 행동이나 태도, 습관들에 의해서 그 꼬리표가 변형되고, 그 꼬리표는 자손 3-4대에 이르기까지 유전된다고 보고되었다. 그런 것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또는 악한 습관까지 유전된다고 본다. 영적으로 그런 것들은 견고한 진에 해당한다.

-이런 견고한 진은 강한 확신으로만 물리칠 수 있고, 지속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 거짓말이 유전인자까지 변형시켰다고 볼 수 있다. 축귀란 단순히 귀신이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생활습관병까지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생활이 가장 중요한 축귀)

### 관계 안에서의 영적 전쟁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신의 영역을 장악하기

(김광웅 집사의 주민센터 민원, 자신이 처리할 경우 훨씬 이롭다는 판단이 중요함.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기능과 위치에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

-공적인 영역에서 중보하기. 아말렉은 우리편에 유리한 조건만 모색.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모색함.

-도전에 응전하기.

-도움 요청에 주의하기.

### 체제 안에서의 영적 전쟁

-체제 감각 활성화 (좁은 의미로서는 이념전쟁)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가치관은 성경말씀이고, 법률은 십계명,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다른 체제를 가늠하게 된다. 단순히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기준이 아니다.

-체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한다.

-악한 자가 정권을 잡았다면 지혜롭게 활동하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기

-요셉과 다니엘에게서 배우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성경: 유다서 1장

Tag: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공훈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미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이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 그들은 기탄 없이(염치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거짓 예언자. 이기적인 지도자; 자유한국당에 여럿 있는 것 같다. -탄핵에 찬성한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다들 생각함. 대부분은 현 국회기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 국회를 통한 공산화를 막는 역할이 남았다고 본다. 행여라도 차기 국회를 탐하는 자는 이기적인 국회의원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4 아담의 칠대 손(8대손인데 에녹서에 7대손이라 기록됨. 아담이 1대라면 에녹은 7대)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천사)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

15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민 14:2)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지금 현재)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기롱하는 자들,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는 자들, 말장난 하는 자들; 거짓뉴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당을 짓는자며-개역;이들은 꼭 당을 짓는다, 선동한다. 논쟁과 분열을 일으킨다. 분파를 만드는 자)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주격적 속격;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O, 목적격적 속격;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X) 안에서(교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미혹되어 흔들리는 자들) 공훈히 여기라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이미 지옥에 간 자들이 아닌, 그냥 방치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로 봄이 타당함.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눅17:3)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6:1)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딤후5:20)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딤후3:10)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약5:19-20))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

되 두려움으로 공홀히 여기라 (그들의 죄를 철저히 미워하라; 혐오에 대한 바른 경계, 혐오 자체를 죄라 할 수 없다.)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1:1-25)

앞 부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